



제목	Persian Life and Customs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Darf Publishers Ltd.
발행일	2001. 1. 1.
저자	Samuel Graham Wilson
출판국가	영국
페이지수	329
ISBN 또는 ISSN	978-1850772354

내용 요약

『페르시아인들의 삶과 관습』은 윌슨(S. G. Wilson)이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 위원회 파견 선교사로서 페르시아 타브리즈에서 14년 동안 거주한 후 페르시아에서 만난 사람과 접한 페르시아 관습과 문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.

윌슨은 이 책에서 페르시아의 관습이 고정 관념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한 나라의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. 각 지역의 땅이 다르고,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,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,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풍습이나 관습도 통일되지 않고 영속적이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. 초장에서는 ‘페르시아로 가는 도중에 방문한 장소와 눈으로 본 장면’을 설명하고, 중간 부분에서는 도시, 마을, 텐트에서 경험한 시민적·종교적·사회적·지역적·상업적 생활을 묘사하며, 마지막 부분에서는 ‘페르시아 여러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방법과 결과’를 소개한다.

결국 이 책은 선교사의 눈에 비친 ‘페르시아인들의 삶과 관습’의 모습이다. 강산이 변하는 세월보다 더 오래 페르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자가 페르시아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페르시아인들을 관찰하고,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,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고 볼 수 있다. 더군다나 저자의 태도와 관점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현상에 대한 가변성을 전제하기 때문에, 이 책을 통해 페르시아인들의 진면목을 나름대로 잘 알 수 있다.